

90年代 韓國食品産業의 展望

盧 完 燮

(東國大 食品工學科 教授)

우리나라의 食品産業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다양한 加工食品의 생산과 더불어 生産工程의 自動化와 能率化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技術水準도 先進化 되어가는 추세이다.

국민소득의 증대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高級化와 便宜性 그리고 安全性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산업은 加速的으로 발전할 것이다.

食品이란 위생상 안전하여야 하며, 원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소비자의 嗜好에 부응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값이 싸고 營養價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좋은 식품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 식품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의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국민소득 3천불을 뛰어넘어 생활의 안정과 여가의 선용, 레저산업의 발달 그리고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식품산업, 특히 外食産業의 붐을 가속화시켜 우리의 食生活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健康食과 美食에 대한 끝없는 추구로 식생활의 고급화로 이제 우리나라 식품산업도 청년기에서 성숙된 장년기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好事多魔라고나 할까, 지난 88년부터

시작된 美國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수입 개방 압력에 따른 수입 자유화 조치로 국내 식품산업은 일대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식품원료와 가공식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자몽파동과 같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야기되는등 예기치 못한 食品事故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어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국내 식품업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대부분의 가공원료의 조달을 外國産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에 價格이나 品質選擇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으며, 加工技術이나 機械 設備도 선진국으로 부터 도입을 해야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國産 가공식품은 원천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雪上加霜으로 한정된 우리의 內需市場에 경쟁력이 강한 수입식품이 몰려오고 있으니 참으로 難堪한 처지에 이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日本등과는 달리 식품원료의 수입은 묶어 놓고, 완제품의 수입부터 개방하였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內需市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海外 수출시장의 개척은 국내시장 개척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식품 메이커들은 여러 가지 自救策을

마련하여 열심히 뛰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어두운 것 만은 아니다.

여기서 '90년대 우리 나라 식품산업의 전망을 업종별로 살펴보자.

1. 製粉工業

국내 경기침체에다가 原麥導入에 따르는 자금압박과 치열한 판매경쟁 원맥수입 자체충당 자금과 美國의 CCC 자금확보 사정이 악화되어 자금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정된 내수시장을 놓고 수입개방에 따라 밀가루 자체가 수입될 경우 과당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며, 여기에 밀가루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까지 수입이 개방된다면 국내의 제분 및 제분 가공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사분규의 타결과 생산의 자동화를 시급히 실시하여 원가절감과 附加價値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정확한 需要의 판단이 요구되는 곡물정책을 비전문가들이 결정할 수입개방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再考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제분공업은 작년과 對比하여 약 10%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製빵 및 製菓工業

소규모 윈도우 베이커리(Window bakery) 업계의 시장 蠶食으로 대메이커들은 점차 고전할 전망이다. 그 외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겠으나 임금인상에 따른 자금의 압박과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작년 대비 10~15% 정도의 매출 신장은 확실할 것이다.

제빵업의 경우, 수입개방으로 좋은 원료를 싼 값에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환영하고 있으며, 빵은 저장성 때문에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수입개방을 은근히 환영하는 눈치이다.

그러나 製菓工業의 경우에는 多品種 소량생

산에 따른 가동을 저하와 유통조직의 취약성 때문에 新鮮度를 강점으로 내세워 高級製品의 개발과 함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경쟁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라면工業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식품 중에서 가장 안정된 업종으로서 크게 우려되는 점은 없으나 原資材의 가격 상승으로 原價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수입개방으로 인한 타격은 별로 없다. 뿐만 아니라 국산라면의 경우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산 라면이 들어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의 자동화에 더욱 힘을 기울여 원가절감을 꾀하고 고유한 맛을 가진 신제품과 고급제품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製糖工業

설탕의 원료인 原糖의 가격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된데다가 園貨切上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설탕수출은 어렵게 되어 작년수준 정도의 내수 경기에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8~12% 정도의 성장에 머무를 전망이다. 경역압박, 원가상승에 따른 판매부진과 설탕의 기피 및 노사분규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정된 내수시장이 위축되어 있는데 수입 설탕이 들어오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업체로서는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축적에 힘써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의 개선과 제품의 다양화, 원가의 절감과 부가가치의 재고를 실현하여야 하겠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의 감소를 의식하여 업체가 공동적으로 설탕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는 한편 경영의 합리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5. 飲料工業

우리 나라 식품산업 중에서 가장 눈부신 伸張을 하여 온 업종이 바로 음료공업이다.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시장전망이 어렵기는 하지만 금년도 예상 매출액 30%는 무난할 것으로 보아 식품산업 중 가장 전망이 좋을 것이다.

음료의 판매는 주로 루트 세일(route sale)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든 일이라 점차 근로자가 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업종이다. 그러나 수입개방에는 이미 세계 유명브랜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입음료가 들어와도 판매량은 대단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쟁이 심하여 광고비 지출이 크고 근래에는 유명 외국 인기인을 비싼 광고 모델료를 지불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청량음료는 사치성 제품이 아니므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강력해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 乳加工業

原乳의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와 附加價値가 적어 판매비용의 확보와 자금조달이 어려워 연평균 성장율을 8%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牛乳 및 乳加工業도 수입개방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므로 단순하게 생각하여 比較優位로 낙관해서는 않될 것이다. 따라서 附加價値가 높은 버터나 치즈 등의 제품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증대를 유도해 나가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근래에 우유의 살균 방법을 놓고 업계간에 치열한 싸움을 하고있어 소위 牛乳戰爭이라고 까지 하여 소비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볼수없다.

한편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그런대로 好況을 누리고 있어 20%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짧아서 제품개발에 따르는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생크림(生cream)등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편이다. 수입이 개방될 경우 제품의 고급화가 가능해져 품질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에따라 高價의 고급제품이 체인점 단위로 판매가 伸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국 브랜드의 잇단 상륙으로 메이커간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과 품질개발로 국내경쟁은 물론 국제적인 경쟁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7. 肉加工業

소득증대에 따른 식생활의 고급화로 肉類의 소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전망은 대단히 밝아, 금년도 예상목표인 17% 신장은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수입개방에 있어서 완제품 보다는 원료육의 수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는데 완제품이 수입되어 국산품의 경쟁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수입개방에 대한 代案이 없으므로 우선 원료육의 수입이 가능하다면 품질과 판매조적으로 수입제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屠畜시설을 현대화하고 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90kg 이하의 돼지를 잡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할 것이며, 원료육의 수입은 개방하고 수입 완제품에는 관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수입품의 소비를 억제시켜야 할 것이다.

8. 水産食品 加工業

신규업체의 참여로 판매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稼動率이 낮아지고 있으며, 가격질서가 무너지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어, 판매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업종과는 달리 수입개방에 따른 어려

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다 활발한 판매신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홍보전락과 영업망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 대비 20%정도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 冷凍食品 加工業

금년도 상반기에는 이상기온으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꾸준하게 신장하여 90년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확한 판매실적을 밝히기를 꺼리는 업체도 있으나 일부업체는 지난해 60%정도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임금상승과 콜드 체인 시스템(cold chain system)이 낙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수입개방으로 원자재 구입이 쉬워져서 제품개발이 기대되고, 소비자도 제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커져 국내업체들의 제품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맛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원가절감에 주력한다면 전망은 밝을 것이다.

제품의 위생적인 문제, 유통기간의 철저한 이행 등에 있어서 현실성있는 법규제정이 필요하며, 애매모호한 규정들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냉창고와 냉동창고에 사용되는 전기요금도 산업용으로 인정하여 원가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10. 外食産業

매년 10~50%로 급격한 신장을 누려왔던 외식산업은 약간 둔화하는 추세이나 업종과 품목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원자재의 가격이 비싸고騰落이 심하며, 사회적 불안으로 매출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식산업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수입이 개방되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수입개방을 환영하

고 있으며, QSC를 강화하고 업계 현실에 맞도록 각종 관련 법규를 제정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11. 酒類工業

주류시장의 경우 수입개방에 따라 利害가 상반되고 있어 소주의 경우에는 타격이 없겠으나 포도주와 위스키는 타격이 클 것이므로 지금 까지 국산 위스키 제조시설에 투자한 200억원에 달하는 시설이 死藏될 판이어서 국내 양주업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國產洋酒의 품질 향상과 홍보강화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酒稅를 種價稅에서 種量稅로 개정해 주어야 하며, 국산 양주에는 주세에 差等을 두어 경쟁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12. 茶類食品工業

정치적 사회적 불안과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 위축이 예상되고,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인상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순조로운 성장은 어렵겠지만 예년수준인 15% 정도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가물과 원료에 대한 제약이 많아 제품개발에 지장이 크다. 시설투자, 간접비 부담이 크고 품질보다는 가격경쟁이 自行되고 있는 업계의 풍토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품질개발 면에서나 소비자 선호도 측정이라는 면에서의 잇점이 있으나 무절제한 수입으로 기존의 유통질서가 문란해진다면 업계로서는 타격이 클 것이다. 따라서 수입개방에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 없으며, 품질향상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생산시설의 자동화로 원가를 절감하고 제품의 고급화와 고유한 맛의 창출로 소비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13. 절임류공업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 제품의 특성상 수입개방과는 무관할 것이며, 시장조사와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생산공정의 자동화 범위를 확대시켜 원가절감을 기하는 한편, TQC의 강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절임식품의 취약점인 포장기술의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하겠다.

14. 醬類工業

생활양식의 都市化와 核家族化로 장류의 소비는 계속 늘어갈 전망이다. 매년 15%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겠으나, 현재 원료와 기계 시설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수입하여 분배해 주고 있는 방법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中小企業 고유업종으로 묶어 사업확장을 제한하여,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 배양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생산시설의 자동화로 원가절감을 기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를 확대해 나간다면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한편 정부는 완제품의 수입에 앞서 생산원료와 기계수입부터 개방하여 업계의 경쟁력을 키워줘야 하며, KS제도를 강화하여 장류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원료와 기계의 수입을 업계의 自律에 맡겨 주어야만 할 것이다.

15. 調味料工業

패스트 후드(fast food)의 소비증가로 조미식품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15~20% 신장은 무난할 전망이다.

수입품의 등장으로 한정된 內需市場에서의 판매경쟁은 치열할 것이며, 이로인한 과열 스카웃으로 임금인상에 따른 收益性 惡化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이 개방되면 원료수급이 용이해져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수입품과 경쟁을 해야하는 어려움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에 노력하는 한편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潛在 需要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16. 油脂工業

生産性的 低下, 경기침체 등으로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지만 援慢한 성장은 기대할 수 있어, 7~16% 정도의 판매신장은 무난할 것이다. 해외 大豆 가격의 暴騰 등 원가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資金壓迫에 수입개방까지 접친다면 원칙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강한 수입품이 들어올 경우 국내업체의 가동율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모색과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제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임가공 생산 등을 추진하고, 마케팅 부문의 전략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입자유화의 시기를 최대한으로 늦춰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 주던가 아니면 수입관세를 높여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워줘야 하며, 예상되는 中共産 大豆粕의 덤핑을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할 것이다.

17. 食品添加物工業

식품첨가물은 모든 식품공업에 사용되므로 식품업체에 작용하는 狀況變數가 그대로 반영된다. 따라서 업계의 전망에 따라 경기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다양한 원자재의 확보가 어렵고,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경쟁에 따른 덤핑이 심하여 구조적으로 취약한 업종이다. 그러나 마진이 크기 때문에 원가절감과 附加價値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이면 전망은 밝은 업종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첨가물에 대한 인식이否定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安全性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제품이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18. 包裝材料 및 包裝機械 工業

식품의 高級化에 따라 多樣化에 따라 포장재료와 포장기술도 더욱 高級化되고 화려해 지고 있어서 시장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포장재료의 경우 임금인상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잦은 노사분규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입개방에 따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關稅引下로 국산 포장재와의 代替 등 외국기업의 挑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이배리성 新素材의 개발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포장재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OPP는 신규업체의 과잉투자로 국내수요의 3배나 되는 생산 캐퍼를 갖고 있어 시설의 과잉투자를 정부가 규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장기계의 경우는 品目別로 차이는 있겠지만 15~50% 정도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원자재의 수급이 불확실하여 제품개발이 어렵다. 그러나 수입개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품질의 高級化와 A/S를 강화하고, 국산 포장기계의 개발에

정부차원에서 자금지원을 늘려주어야 할 것이다.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90年代 食品産業을 業種別로 살펴 보았다. 業種間에 多少의 差異는 있겠으나 공통적인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收入開放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現實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多角的인 對應戰略들이 講究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收入의 選擇인 開放내지는 수입개방의 遲延이 절실하게 要求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수입개방에 따른 長短期 對策을 樹立하는데 全力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切迫한 狀況에 처해 있다는 것이 우리 나라 식품산업의 공통된 課題라는데 認識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문제에 効率的으로 對處하기 위하여 經營의 合理化, 施設의 自動化로 原價의 切感과 貨金負擔의 極小化를 꾀하고, 新製品의 開發과 品質의 高級化를 이룩하여 消費者의 嗜好에 副應할 수 있는 製品을 生産하려는 努力을 한다면 國內 食品産業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금까지의 發展 餘勢를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90年代의 우리 나라 食品産業의 展望은 好轉될 수 있을 것이다.